특집

젖소고기 합당한 대우 받을 수 있다.

젖소비육 기술과 사양관리

이 종 준
경북중앙낙협 조합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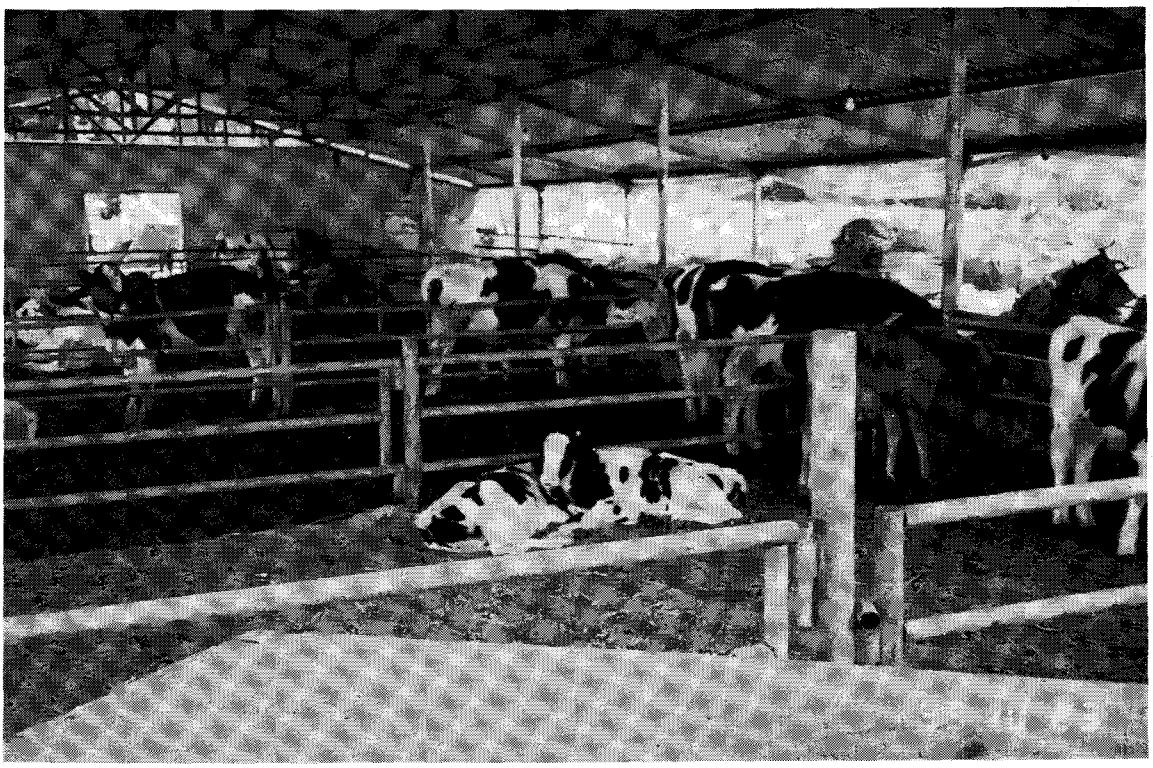
비육기술과 사양관리

전국의 낙농육우 농가 여러분께 지면을 통해 적은 의견제시가 낙농육우 사업에 이익이 되었으면 하는 희망에 지나온 경험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축산분야의 국내외 정세는 날로 사양기술이나 관리면에서 고도화 되어가고 수입개방 압력도 날로 가중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 국내소비자도 고급품의 축산물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과거 1967년 한우 400kg 성우가 135,000원 할 무렵부터 비육사업을 시작 1984년까지 계속 비육사업을 하는 동안 소값 파동 등 우여곡절을 많이 겪은 결과 축산의 이론과 경험을 쌓을 수 있었다. 먼저 1985년도 낙농으로 전환하면서 비육을 겸하여 현재 착유우(후보축 포함) 120두, 비육우(젖소) 27두를 사육하는 규모의 양축가로써 왜 낙농을 하면서 비육우 사업을 겸하여 하는지 이유를 밝히고져 한다.

현재 축산농가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지만 규모를 늘리고 시설투자를 늘리다 보니 착유우에서 나는 소득으로는 생활하고, 원자재(사료 및 조사료, 약품)값 지불하기도 바쁜 실정이다. 그나마 송아지 생산을 한 몫으로 잡고 비육을 하면 몫돈 마련이 용이 하다는 점에서 낙농은 현상유지를 하면서 큰 자금 마련에 한 몫을 하기 위해서이다. 또 다른 이유는 이번 한국산 젖소(숫놈)고기 전문 판매점을 계획하는 이 시점에 왜 우리가 젖소 숫놈쪽의 비육을 전개해야 하는지?

선진국 예를 들어보자. 지난해 일본의 경우 쇠고기 수입자유화가 되니 젖소 숫송아지 가격이 양질의 수입 쇠고기에 밀려 숫송아지 가격이 7만엔선에서 3만엔 까지 절반이상 떨어진 경우가 있었다. 일본 낙농가와 낙농협동조합에서 공동사육장을 만들어 조합원들의 송아지를 우선 구매해서 집중사육을 하면서 일반 소비자에게 생산과정 및 사육하는 과정, 일본 화우나 수입육과의 비교 시식회를 통해서 수입육 보다 맛이 좋고 화우보다도 못지 않는 맛을 보여주므로서 젖소



숫놈쪽으로 소비자를 끌어들여 소비촉진을 유도해 나갔다. 그러므로 지금 현재 젖소 숫송아지 가격을 정상가격 7만엔선으로 끌어올렸다. 이런 선진국의 노력을 남의 일로만 생각할 수 없다.

우리나라 한우농가가 순수 전통한우를 지키려고 하듯이 우리 낙농가도 한국산 젖소숫소의 시장을 필연코 지켜야 할 의무를 가지고 노력해야 낙농가의 수익이 보장되리라 본다.

첫째, 한우비육 사업과 젖소 비육사업의 비교를 통해서 검토해 보자. 현재 젖소 숫송아지 초유떼기가 일반 상거래로 70만원~80만원선에서 거래되고 있는 현실에서 낙농가가 송아지로 매매하는 것은 손실이 크다. 왜 손실이 오는지 비교해 보자. 젖소 숫놈의 경우 초유떼기 로부터 16개월 사육하면 생체 700kg으로서 또 도축장 지육 400~415kg으로 현재 지육단가로도 약 300만원선이 되므로 송아지 가격 75만원과 사료비 80만원 합쳐 155만원의 투자로 145만원의 소득이 이루어진다. 다시말해 젖소 숫놈의 경우 월 1두당 8~9만원 정도 소득이 이루어진다. 반면 한우쪽은 송아지 구입가격이 150만원 선으로 12개월 사육을 하면 사료비 54만원 합쳐서 투입원가가 204만원 선으로 형성되는 셈이다. 그리고 출하했을 때 450kg 생체로서 높은 가격일때 260만원 정도이다. 실제 소득면에서 12개월에 50~60만원선으로 젖소 숫놈쪽 보다 현실적으로 이익이 없다. 지리적 여건이나 시장형성의 차이에 따라 다를수도 있지만 극히 일부분 일일 것이다.

다음은 소의 구입시 요령을 열거해 보자. 어떤 자질의 소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경제적 이익은 폭이 크다. 첫째 모피가 부드럽고 틀이 조밀하여 윤기가 나야하고 머리는 적은 편이며 목은 가늘며 귀는 작아야 하며 가슴은 넓고 어깨도 넓으면서 등허리 선이 튼튼한 송아지를 선택하여야 하며 갈비뼈가 둥글며 적당한 간격으로 배열되어야 하며 뒷골반이 넓고 평평하여야 한다.

참고로 알기쉬운 방법은 송아지가 서 있는 자세를 유심히 보면 다리쪽을 넓게 서 있는 자세, 뒤는 다리

가 꼿꼿하게 서 있는 자세로서 등이 아래로 처져있지 않는 자세를 말함이다. 이런 점들을 유의해서 구입하게 되면 좋은 체격의 성우가 된다. 소 구입시 반드시 구충제 투여(주사제도 가능)를 해야 하며, 구입된 날로 부터 한우의 경우 3개월간 어린송아지 사료를 급여하여야 하며 젖소의 경우 젖떼무렵 구충제(주사제 가능)을 투여하고 6개월 단위 구충박멸은 꼭 선행하여야 한다.

이제부터 사양방법 및 기술면을 열거해 보자. 젖소 숫놈의 경우 초유떼기 부터 3~4개월간 어린송아지 사료와 양질의 건초나 알팔파 건초를 충분히 급여하는 것이 1 위(胃)를 튼튼하게 하고 사료섭취를 강화하게 된다. 다음 1개월간 어린송아지 사료와 육성비육 사료를 50%씩 혼합해서 급여한다. 6개월령 부터 육성비육 사료를 계속 출하시 까지 급여한다. 이때부터 조사료는 가급적 볏짚을 암모니아 처리해서 먹이는 것이 효과적이며 특히 부산물(맥주밥, 고량주밥)중 알콜성분이 함유된 것을 첨가로 먹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비육 방법이다. 또한 쌀에서 나온 백세미를 곁들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런 방법들이 육질을 좋게 하고 비육을 촉진시키는 방법이다.

한우의 경우는 출하 3개월 전부터 큰소비육 사료로 대처하여야 한다. 출하시 까지 육성비육이나 어떤 농가는 착유사료를 급여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과다지방으로 인해 육질의 저하 우려된다. 앞에서 언급한 맥맥주밥이나 알콜성분이 함유된 부산물을 권장하는 것은 소화율 증대와 고급육을 만드는데는 큰 효과가 있다. 외국에서는 심지어 맥주를 물에 희석해서 먹이는 경우도 많다.

우리나라 실정은 경제적이 못되는 경우지만 이렇게 사육한 성우를 도축장에 도축했을 때 직접 도축과정을 보지 않으면 한우고기인지 젖소고기인지 식별하기 어렵다. 이상은 비육의 방법을 설명했고, 이제는 관리면을 살펴보자.

송아지관리가 어려운 시기는 3~4개월령까지다. 젖떼무렵 설사병과 호흡기 질병이 빈번하다. 질병을 관찰하기 가장 쉬운 시간은 아침 이른시간 즉 휴면시간에서 활동개시할 때 송아지를 관찰하면 콧물, 호흡곤란, 설사등을 한꺼번에 관찰할 수 있다. 모든 질병은 조기발견해서 빨리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 축사바닥은 항상 건조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통풍이 잘되어야 한다. 혹 농가에 방문해 보면 축축한 바닥에 축분이 청소되지 않아 가스가 많이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사람이 냄새를 맡을 정도면 송아지는 매우 곤란함을 느낀다. 사람은 지면에서 170cm 이상에서 느낄 수 있지만 송아지는 거의 바닥과 콧구멍이 밀착된 상태로 생육하는 것을 잊지말아야 한다. 또 한가지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우군 숫자를 미리 정해서 어릴때 분방하는 것이 좋다. 예로서 적당한 두수는 1방에 6~7두씩 한 장소에서 계속 사육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옆방과의 이동도 소에게는 큰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많다. 쾌적한 환경과 축주의 시선이 항상 같이 하는 경우에는 질병사와 실패는 거의 없을 것이다.

송아지 관리가 어려운 시기는 3~4개월령까지다. 젖떼무렵 설사병과 호흡기 질병이 빈번하다. 질병을 관찰하기 가장 쉬운 시간은 아침 이른시간 즉 휴면시간에서 활동개시할 때 송아지를 관찰하면 콧물, 호흡곤란, 설사등을 한꺼번에 관찰할 수 있다. 모든 질병은 조기발견해서 빨리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음은 출하시기와 규격에 얼마의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자. 한우의 경우 체중 450kg~550kg이 출하적정시기이며 젖소의 경우 650kg~750kg이 경제적으로 이익이 많다. 가급적 이 기준까지 사육해서 출하를 조절하는 것이 축산의 승부수다. 출하시기는 미리 계획입안하여 조절하는 것이 좋다. 년중 경우를 보면 연말 연시와 구정때, 또한 5월 초순(어린이날, 어버이날)경, 8월 추석, 졸업시즌 여러 각도로 시장을 겨냥해서 출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무쪼록 지금까지 서술한 내용이 전국 낙농육우농가에 다소나마 도움이 되시길 기원하면서 항상 축산업에 발전이 있으시길 바란다.